



##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초록 식물

봄이 되면 더욱 신경 쓰이는 대기오염. 그런데 실내 대기오염이 실외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건축재, 가구, 전자제품, 패브릭 소품, 의류, 청소용품, 화장품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물질,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진 등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새집증후군이나 건물병증후군, 석면폐증, 폐암 같은 '건물 관련 질병'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엔 인테리어 소품으로 식물이 급부상하고 있다. 독특한 조형성과 함께 공기 정화, 심신 안정의 기능까지 갖춘 식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 공기청정기다.

### 천연 공기청정기이자 가습기

식물이 실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연구로부터다. 나사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인 우주선에서 300여 종의 오염물질을 측정했고, 밀폐된 실험실과 생활 공간을 재현한 '바이오 홈(Bio-home)'에서 실험을 진행, 식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잎의 기공과 토양이 오염물질을 끌어들이면 뿌리의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양분으로 분해해 공기를 정화하는 동시에 수증기를 대기로 뿜어내는 증산작용으로 실내 습도를 높인다. 식물은 천연 공기청정기이자 가습기인 셈이다. 건물 벽면 전체에 식물을 심음으로써 일상적인 공간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프랑스 식물학자 파트리크 블랑(Patrick Blanc)의 '식물 벽(plant wall)' 프로젝트처럼 온 집안을 식물로 도배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식물 하나부터 집 안에 들여 보자.

### 공간에 따른 식물 배치도

나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특정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식물의 종류와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실내식물 50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보스턴고사리는 포름알데히드를, 아레카야자는 크실렌과 톨루엔을, 관음죽은 암모니아를, 그리고 스파티필럼은 아세톤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아레카야자, 관음죽, 대나무야자,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 자넷 크레이그는 공기정화 능력 순위의 1~5위에 해당하는 식물들이다. 식물이 오염물질 제거 능력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의 특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하면 공기정화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침실에 선인장, 호접란, 다육식물을 두면 자는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여준다. 주방에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탁월한 스킨답서스, 산호수, 아펠란드라를, 거실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데 뛰어난 야자수, 고무나무, 보스턴고사리 등을 추천한다. 화장실에는 관음죽, 스파티필럼, 안스리움, 맥문동, 테이블야자같이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식물을, 베란다에는 미세먼지와 분진을 제거하는 팔손이나무, 분화국화, 시클라멘, 꽃베고니아, 허브 류를 배치하면 좋다.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방이나 서재에는 음이온을 방출하는 팔손이나무, 필로덴드론, 로즈마리, 파키라같은 식물을 두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을 도울 수 있다. 현대인이 살고 있는 인공적인 실내 환경에서 식물을 키우는 일이 쉽진 않지만 삶의 질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일기에 도전해볼 만하다.

### 참고문헌

『새집증후군을 치유하는 실내공기정화식물 50가지』 윌버튼(B. C. Wolverton), 김광진 옮김, 서울: 중앙생활사, 2005. / 『실내식물이 사람을 살린다』 손기철, 서울: 중앙생활사, 2009.

1 장-마크 디망쉬(Jean-Marc Dimanche) 집의 20~23피트 높이에 달하는 거실 한쪽 벽에 프랑스 식물학자 파트리크 블랑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식물 벽'을 설치했다. 2004년에 디망쉬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블랑의 첫 실내 작업으로, 150여 종에 달하는 열대우림 음식물쓰레기 뿌리내리고 있다. 블랑의 '식물 벽' 프로젝트는 도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시에서 자연과 호흡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40년 동안 3개 대륙의 식물 연구를 바탕으로 시작된 '식물 벽'은 전세계 호텔, 백화점, 미술관,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다. 블랑은 "식물 벽은 도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연과 화해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www.verticalgardenpatrickblanc.com

